

제125회 여름 대공연 음향팀 인수인계서

음향팀장 : 63기 장선웅

1. 1주차

-1주차에는 음향 팀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식을 진행하면서 정확히 음향팀이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대본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짜 오로지 친목을 위해서 만나는 첫주였습니다.

(이때 조금 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아야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키스텝 회의에 팀원 한명을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미리미리 누가 갈지 정해놓지 못해서 나중에 매번 번거롭게 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연출님과 컨택을 하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컨택을 하여 연출님이 원하시는 음향의 방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2주차

- 2주차에는 음향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음향 용어와 어떤 식으로 음향을 찾아야하는지, 음향 오퍼를 보는 방식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용어정리

■ 하우스 음악: 관객 입장, 퇴장 시 재생하는 음악 (입장 음악과 퇴장 음악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 커튼콜 음악: 극이 끝나고,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할 때 재생하는 음악

■ 장간 음악: 장과 장 사이에 들어가는 음악 (극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올모스트

트 메인의 경우 옴니버스식 극이라 장간 음악이 존재하였다.)> 다만 54회 공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

니다. ■ 막간 음악: 막과 막 사이에 들어가는 음악 (보통 어떤 극이든 막간 음악은 사용한다.)

▶ 올모스트 메인의 경우에는 흔히 “오로라 음악”이라 불렀습니다. ■ 효과음: 문 열리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등의 효과음 (보통 대본에 지문으로 적혀 있다.)

■ 디머: 음향 콘솔에서 음향의 볼륨을 조절하는 키

- F.I. (페이드인): 음향을 서서히 키는 것 (디머를 올려서), 딤인으로 말하기도 함
- F.O.(페이드아웃): 음향을 서서히 끄는 것 (디머를 내려서), 딤아웃으로 말하기도 함
- C.I. (컷인): 음향을 한 번에 키는 것 (디머가 올려진 상태에서 재생)
- C.O. (컷아웃): 음향을 한 번에 끄는 것 (재생을 멈추거나, 디머를 빠르게 내림)

* 효과음이 아닌 이상 보통 모든 음향은 F.I. & F.O.으로 들어가게 되고, 효과음의 경우 C.I.& C.O.으로 들어간다. #. 이에 추가하여 효과음이 페이드 인/아웃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장면 또한 존재합니다.

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아웃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편집할 때 그러한 효과를 넣어 편집한 뒤, 실제 오퍼레이션에서는 컷인/컷아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약간의 팁이라면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매우 짧아 자칫하면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 관객에게 들리는 대참사가 날 수 있기에, 웬만하면 효과음 뒤에 5-10초 정도의 빈공간을 만들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향 오퍼 기기 작동시키는 원리

일단 극장마다 기기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기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음향 오퍼 기기에는 노트북을 연결하는 선이 있고 연결하게 되면 특정 채널에서 노트북 음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음향은 적절한 정도로 조절을 해놓고, 노트북이 연결 되어 있는 채널의 바를 조절하여 음향 오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퍼를 볼 때 최대 음향이 필요 없는 경우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아서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볼륨을 조절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투스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연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블루투스가 공연 내내 계속 연결되어있지 않아서, 계속 재연결을 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3주차

대본을 읽어와서 대본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들과 어느 부분에 음향이 필요한지 어떤 느낌의 음향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본만 보고 음향의 느낌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습

니다. 머릿 속으로 생각한 것과 실제로 연출이 만든 장면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날렸던 것 같습니다.)

4. 4 ~ 6주차

이때는 한 마디로 빨짓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수인계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볼 다음 음향팀장에게 당부할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발 장면연습을 자주 보러 가십쇼. 시간이 없으면 내서라도 가야합니다. 음향팀원들도 최대한 많이 보게 하십쇼. 장면을 보지 않고 음향을 찾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덕분에 3주를 말도 안되는 음향들을 찾다가 허비했습니다.

음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음악들을 일일이 전부 들어보고 느낌에 맞는 음악을 골라야합니다. 음향을 요청 받을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원 편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원 편집은 음원 편집 프로그램인 Goldwave를 사용하면 정말 손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무료라 부담없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5. 7 ~ 8주차

7, 8주차가 되어서야 장면연습을 보러갔고, 기존에 찾던 음악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철야 때 밤새도록 음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은 공연 전까지 찾긴 하였지만, 굉장히 마음 졸이며 보냈던 주인 것 같습니다.

| Cue# | Scene# | 장면 | 음악/효과음 | 직전 대사/조명 | 큐 | 비고 |
|------|------------|-------------|--------------|--|-----|-----------|
| 1 | 하우스 | 입장음악 | 하우스 입장곡 | 공연 시작전 | | |
| 2 | #0 기자회견 | 기자회견 시작 전 | #. 카메라 셔터 소리 | 여자 대사 후 주혁, 정배 등장시 바로 | C.I | |
| 3 | #0 기자회견 | 기자회견 시작 전 | #. 카메라 셔터 소리 | 여자 : 넌리넌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대사 끝나고 3초뒤 | C.O | |
| 4 | 막전환(#0-#1) | 기자회견 ~ 재판직전 | #0-#1. 뉴스 소리 | (암전) | F.I | |
| 5 | 막전환(#0-#1) | 기자회견 ~ 재판직전 | #0-#1. 뉴스 소리 | 마지막까지 다 틀고 끄기 | C.O | |
| 6 | #3 연극반 | 술 마시는 장면 | #3 음악 | 다같이 :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추앙으면 패이드인 | F.I | |
| 7 | #3 연극반 | 술 마시는 장면 | #3 음악 | 남자 : 김주혁 아직도 무의식이 ~ | | 음향 반으로 줄임 |
| 7 | #3 연극반 | 술 마시는 장면 | #3 음악 | 여자 : ~ 이 온갖 가능성이 열려 있는 파릇파릇한 늑대. 2초뒤에 | F.O | |
| 8 | #5 잔디밭 | 돈결 햄릿 독백 | 햄릿 독백 음악 | 돈결 : 셰익스피어 독백 들어가면(천천히 틀기) | F.I | |
| 9 | #5 잔디밭 | 돈결 햄릿 독백 | 햄릿 독백 음악 | 돈결 : 한 자루의 단도면 깨끗이 찌를 수 ~ | F.O | |
| 10 | #5 잔디밭 | 승희 도시락 독백 | 도시락 독백 음악 | 승희 : 오늘은 소풍 가는 날 ~ | F.I | |
| 11 | #5 잔디밭 | 승희 도시락 독백 | 도시락 독백 음악 | 승희 : ~보란 듯이 맛있게 씹씹 비운다. 직후 | F.O | |
| 12 | #5 잔디밭 | 군함발 소리가 들린다 | #5. 군함발 | 친구들, 환호하며 박수친다. "인간이다!" "인간이다!" 대사 1초뒤 | C.I | |
| 13 | #5 잔디밭 | 군함발 소리가 들린다 | #5. 군함발 | 남자 : 첫번째 현실에서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후 | F.O | |
| 14 | #10 고문실 | 고문실 장면 시작시 | #10. 고문실 | 남자가 등장할 시에 | F.I | |
| 15 | #10 고문실 | 고문실 장면 끝날시 | #10. 고문실 | 원달이 나타나기 시작할때 페이드 아웃 | F.O | |
| 16 | 커튼콜 | 커튼콜 음악 | 커튼콜 음악 | 공연 이후(암전 시) → 진행 | | |
| 17 | 하우스 | 퇴장음악 | 하우스 퇴장곡 | 커튼콜 끝나고 난 뒤 | | |
| | | | | | | |
| | | 애들이 컴터 비번이야 | 1234 | | | |

큐시트 작성도 8주차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였고, 공연 날까지 계속되는 수정을 거쳤습니다.

6. 공연 주

사실 공연 주는 오퍼를 얼마나 잘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퍼라고 하면 정확한 타이밍에 음향을 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확한 타이밍에 음향을 재생하려면 장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보는 음향 팀원들은 다른 팀원들에 비해 정말 많은 장면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들 조금 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오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음향 팀장님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장면 연습을 꼭 많이 보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에 관한 것만 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일을 시작할 때 모든 팀원의 스케줄을 취합을 하여 변동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팀원 중 대다수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많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꼭 미리 모든 일정을 취합 및 정리 해놓아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음향 팀장이라 많은 부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키스텝 분들이 워낙 다 잘해주시고 많은 부분 노력해주신 덕분에 제가 좀 못하더라도 연극이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